

“MOM 편히 출산휴가 가야 맘 놓고 애를 낳죠”

아이가 꿈이다

광주일보 연중기획 | DREAM 프로젝트

제1부 저출산의 뒷
(9) 눈치 보이는 출산휴가

**경제적 어려움·경력 단절·동료에 미안... 휴직 못해
남성 육아휴직 1만명 돌파...사기업은 ‘그림에 떡’
현실 맞는 정책·불이익 없는 복귀 분위기 조성돼야**

“나라와 지자체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고자 하는데 대체 누가 키우는 거죠?”

육아는 많은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이다. 한국사회의 급속한 현대화 속에서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아이를 돌보는 일은 출산율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마음 편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양육은 부모의 책임(?)=육아 휴직의 가장 큰 문제는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회 생활에서 뒤처지는 경력 단절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내에도 출산·육아 휴직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미비하다.

특히 공공기관에 비해 사기업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낮은 것도 문제다. 여성의 육아 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산을 꺼리는 여성들도 늘고 있다.

그나마 국내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연간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지만 대기업 근로자에 국한되고 사용기간이 여성에 비해 현저히 짧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육아휴직제도 남성참여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1만2043명으로 전년 대비 13.4%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사용기간은 여성이 평균 303일인데 비해 남성은 198일로 성별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9~12개월 사용 비율이 73.3%인데 비해 남성은 40.2%에 불과했고 3개월 이하 사용 비율은 여성이 9.5%인데 비해 남성은 41%로 훨씬 높았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자의 62.4%가 30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근로자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사용 비율도 늘고 있지만 더딘 상황이다.

◇현실에 맞는 출산육아 정책 필요=여성가족부는 최근 선정한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에는 육아 휴직 제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은 총 220건이었고 제안자의 대부분 민간기업에서 여전히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공모전에 참여한 국민은 육아휴직·출산휴가 이용자 비율을 모든 기업의 정보공시 항목으로 포함하고, 육아·출산휴가 이용 근로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아빠에게도 정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특별 휴가를 부여 ▲한부모인 군인의 육아 여건을 고려해 희망근무지에서 근무 ▲중증 장애인 여성을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을 일정 범위 안에서 연장 ▲미혼 여성들이 이용을 꺼리지 않도록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개선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고속도로 전광판 캠페인 문구를 개선 등의 제안을 내놨다.

이들 제안들은 출산장려금 등 금전적인 보상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정책의 모순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부분 부모는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눈치 보지 않고 출산·육아 휴직을 다녀와도 전혀 불이익 받지 않지 사회적 구조’가 더욱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출산 축하방

광주일보 연중기획 | DREAM 프로젝트 ‘아이가 꿈이다’에서는 출생한 아이와 산모의 축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이에게 들려주는 덕담, 태명에 얽힌 사연 등을 보내주시면 ‘출생 축하방’ 코너를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 곳: idream@kwangju.co.kr

‘초보 아빠’ 나 대리의 좌충우돌 육아일기

“육아·집안 일 병행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2016년 5월 딸이 태어났다. 갓난쟁이 아이는 육아 휴직을 낸 아내가 양육을 전담하기로 한 터라, 같은 기간 동안 나는 큰 걱정 없이 회사 생활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회사 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갈 때면, 아이는 늘 엄마 곁에서 자고 있었다. 그때마다 곤히 잠자고 있는 아이를 보며, 오늘은 아이와 제대로 못 놀아줬다는 생각에 미안함과 아쉬움이 들었다. 그런 날이 잦아지기 때문일까? 어느 새 아이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옆에 있어도 자연스럽게 늘 엄마를 먼저 찾았다. 정서적으로 나보다 아내와 더 가까워진 아이를 보며, 더 늦기 전 아이와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두 달간 육아휴직을 냈다.

아이 밥 챙기고 기저귀 갈며 살림까지 ‘올기 직전’

동료들 배려에 육아 전념 ‘남성들 꼭 한번 써보길’

아이 반복됐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오후 3시 30분 전까지, 나는 몇몇 자유시간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오만이었다.

고백하건대, 육아와 집안일을 병행한다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 특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나보다 아내와 더 가까워진 아이를 보며, 더 늦기 전 아이와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두 달간 육아휴직을 냈다.

짧았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이 앞에서 여러 번 울고 싶은 순간을 겪었다. 기저귀를 갈면서, 밥을 먹이면서, 옷을 갈아 입히면서 말이다. 딸귀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20개월짜리 아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해하던 내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슬퍼서 웃음이 나온다. 육아휴직 이후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도 깊어졌고, 육아와 집안 살림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으니까.

육아휴직 도중 늦잠을 자려고 했지만, 전혀 늦잠을 잘 수 없었다. 가족 중 가장 먼저 일어나 출근하는 아내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7시 반 쯤에 아내가 출근하면 곧바로 아이를 깨워 기저귀를 갈았다. 이후 아침밥을 먹고 옷을 입혀 9시 30분까지 어린이집에 보내는 일

록 배려해주자고도 하셨다. 회사의 배려 때문인지, 실제로 육아휴직 동안 회사의 동료들은 내게 업무적인 일로는 단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를 늘리려면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팀장이나 오너의 의지, 그리고 이를 이해하는 기업 문화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다.

육아휴직을 쓰기 전, 마음속에 부담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고, 나의 일을 어느 정도는 떠맡아야 할 직장 동료들에게도 조금 미안했다.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가끔적이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꼭 육아휴직을 짧게나마 보내고 싶었다. 나에게 있어 아이와 함께 보냈던 그 짧은 시간은 인생의 본질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나의 자아를 찾는 여정 그 자체였으니 말이다.

〈나승환 금호터미널 문화홍보팀 대리〉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MEMBER-H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